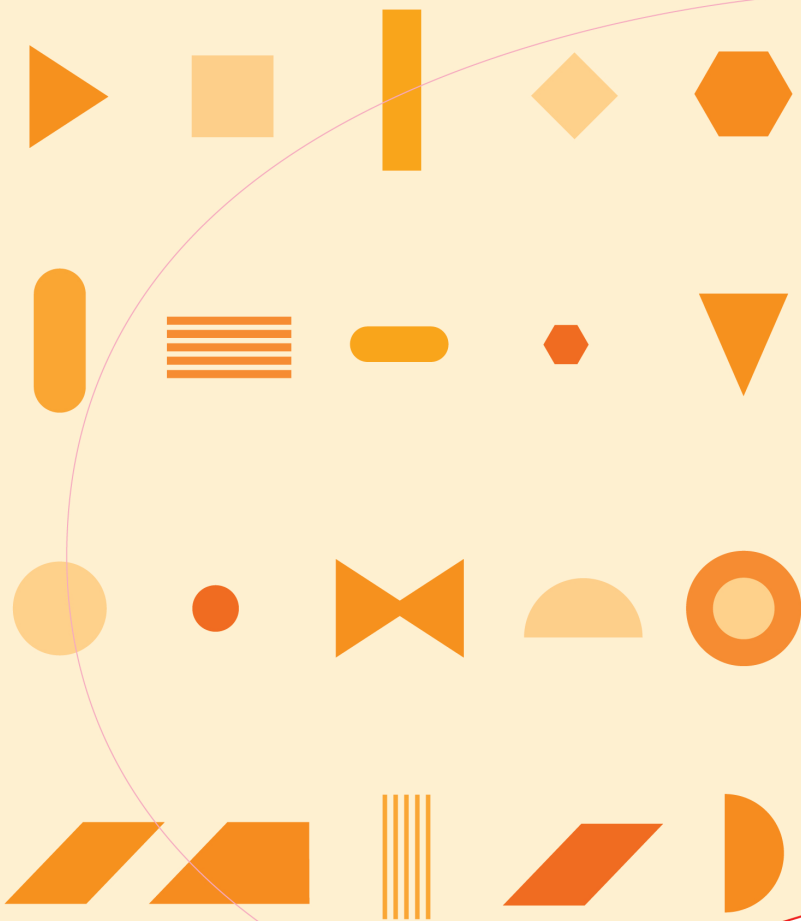




2011 SPRING LIFE - MAY
LOVE AND GRACE

묵상 노트

SPRING Life

2011 5 월호

에스라 & 학개

2011 이민걸 장로님의 결혼 성경공부학교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숙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비전과 소명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는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결혼은 맞선 상대자의 차종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씁쓸한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하여 결혼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높은 물가와 저출산의 시대에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으나 부부가 서로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파경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결혼의 혼란스러운 한 단면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성경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바로 이민걸 장로님의 성경공부(‘주제-부부’)입니다. 당초 예상한 10여명의 인원의 세배가 넘는 30여명이 이 강의에 몰려 모두가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인기의 비결에 대해 이민걸 장로님은 ‘다들 결혼할 때가 되었나 보다’며 웃으셨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몰라 남몰래 가슴앓이를 하던 신촌교회 청년들이 곳곳에 숨어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 성경공부는 결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경공부가 진행되기 전 미리 진행될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예습을 거친 뒤 성경공부 시간에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각자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이민걸 장로님의 정리와 피드백으로 성경공부가 이루어 집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와 배우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원리, 갈등에 대처하는 법, 결혼과 성, 부모와 자녀관계, 재정, 정절 등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이민걸 장로님은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전반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몸소 세우신 두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성숙한 판단과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혼수나 신혼집 장만, 결혼식이 전부가 아님을 이 성경공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모임에 동참하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정은 기자_euni83@nate.com

예비부부 인터뷰 ONE

결혼 성경공부학교는 어땠나요?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촌교회의 HOT한 커플

|| 이중훈(82) ♥ 서지은(80) ||



Q1. 실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공부가 결혼 준비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A. 두 사람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가정을 꿈꾸고 있었지만,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다르고 성경에 나오는 가정과 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똥 구름 잡는 식의
두리뭉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을 준비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결정하지 못했
던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와 가정에 대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많
이 어렵지는 않고 준비해 가는 과정이 재밌고, 행복하
네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삶의 경험에 묻어나오는 좋
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들을 위한 행복한 결혼 준
비 설명서'를 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

Q2. 성경공부를 두분이 함께 듣고 계신데, 성경공부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모습 혹은 상대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느끼시는지,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A.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 내용이지만, 결혼성경공부를 통해서 '누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이라는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이 친구는 왜 이럴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경공부를 통해서 "아! 웬만한 여자들이 이렇구나", "아! 많은 남자들이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를 하며 생기는 의견 차이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행복한 과정이라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때도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Q3. 결혼에 대해 신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A.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과 성경공부를 하고 추천해 주신 책들을 읽고, 두란노에서 하는 결혼 준비학교를 수료했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내용들이 몸에 더 익는것 같아요. 지속적인 노력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제 전부터 공부하시길 강추합니다^^

"서로 간에 누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부부 인터뷰 TWO

결혼 성경공부학교는 어땠나요?



결혼 4개월차, 달콤한 신혼...

|| 문세상(77) ♥ 장은영(85) ||



Q1. 실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공부가 결혼 준비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A. 예전에도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다
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적
인 결혼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이미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서 성경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더 메리트가 있다고나 할까요?^^ 주일날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서 예배를 해 가야 하는데,
저희 부부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주
고받는 시간을 통해 성경공부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

Q2. 성경공부를 두 분이 함께 듣고 계신데, 성경공부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모습 혹은 상대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느끼시는지,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A. 원래 서로 배려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 특별히 달라진 점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신혼 4개월째이기도 하나까요. 하지만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 기도를 통한 확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서로의 비전을 맞추어 가며 살아가게 될텐데 이 성경공부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Q3. 결혼에 대해 신혼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A.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이런 성경공부는 정말 필수적인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기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지혜롭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장로님께서 삶의 경험에
물어 나오는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행복한 결혼준비 설교서'를 받은 느낌입니다."

2011 Special Worship





- 0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 0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 0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 시니라
- 0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 0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0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0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 0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05: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 함과 같이 하나니
- 05: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 0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 0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 0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06:0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06:0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06:0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06:0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 06:05**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 06:0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 06:0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 06:0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 06:0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 06: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 0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0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0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0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 06: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 0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 0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0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 06: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 06: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 06:21**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
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 06:22**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 06: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
어다
- 0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 01:0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 01:0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 01:0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 01:04**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 21:0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 21:0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 21:0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 21:0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 21:0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 21:0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 21:0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 21:08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 21:09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그들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 21:10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 21:11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 21:12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 21: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 01:0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 01:06 그 사면 사람들은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 01:07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 01:08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 01:09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 01:10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밖의 그릇이 천 개이니
- 01:11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 03:01**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 03:0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 03:03**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 03:04**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 03:05**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 03:06**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 03:0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옴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 03:08**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 03:09**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 03:10**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 03:11**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자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 03:1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 03:13**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 04:01**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 04:0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 04:0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 04:0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 04:0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 04:0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 04:07**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 04:08**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 04:09**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 04:10**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테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 04: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 04:12**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 04:13** 이제 왕은 아시읍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 04:14**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 04:15**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 04:16**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 04:17**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 04:18**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 04:19**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 04:20**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 04:21**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 04:22**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 04:23**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 04: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 22:0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 22:02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22:0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 22:04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 22:0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22:0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 22:0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 22:0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 22:0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 22:10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 22:11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 22: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 22:13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 22: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 22: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 22: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 22: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 05:0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 05:02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 05:03 그 때에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 05:04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 05:0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 01:0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01:02**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 01:03**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01:0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 01:0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 01:0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 01:07**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 01:0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와 말하였느니라
- 01:0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뺏았음이라
- 01: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 01: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 01: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 01:13** 그 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 0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 01:15**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



- 05:06**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닛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테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 05:07**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 05:08**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엮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 05:09**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 05:10**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 05:11**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 05: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 05:13**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 05:14**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 05:15**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 05:16**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 05:17** 이제 왕께서 종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 06:01**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 06:02**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 06:03**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 06:04** 큰 돌 세 켤에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 06:0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 06:06** 이제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닛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테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 06:0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 06:08**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테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 06:09**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 06: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 06: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 06:12**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 22:19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22:20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 22:21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22: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
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이다
- 22: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
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 22:25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 22: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이다
- 22: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 22:28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 22:29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 22: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 22:31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 02:0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02:0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 02:0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 02:04 그러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02:0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 02:06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 02:0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02:0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02:0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02:10**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02:1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 02: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 02:13**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 02: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 02:15**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 02:16**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러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
- 02: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갇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 02:18**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 02:19**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 02:20** 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02: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 02:22**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 02: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 06:13**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닛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 06:14**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 06:15**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 06: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 06:17**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 06: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 06:19**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 06: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 06:21**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 06:22**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 07:01**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 07:02**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 손이요 아히둡의 육대 손이요
- 07:03** 아마라의 칠대 손이요 아사라의 팔대 손이요 므라웃의 구대 손이요
- 07:04** 스라히야의 십대 손이요 웃시엘의 십일대 손이요 북기의 십이대 손이요
- 07:05**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
- 07:0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니
- 07:0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 07:0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 07:0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 07:10**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 23:0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3:0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23:0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23:0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23:0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23:0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07:11 여호와와 제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올레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 07: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 07:13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 07:14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 07:15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 07:16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 07:17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 07:18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 07:19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 07:20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 07:21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 07:22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밧까지, 기름도 백 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 07:23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 07: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임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 07: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 07: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 07: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 07:28**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 08:15**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 08:16**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 08:17**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 08: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십팔 명과
- 08:19**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이십 명을 데려오고
- 08:20**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이백이십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 받은 이들이었더라



- 08: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 08: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 08: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 08:24 그 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 08:25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 08:26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 08:27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다리키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 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두 개라
- 08:28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 08:29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 08: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 08:31**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 08:32**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 일 간 머물고
- 08:33**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 08:34**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느니라
- 08:35**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 08: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 24:0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 24:0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 24:0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 24:0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 24:0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 24:0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 24:0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24:0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 24:0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24: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묵상 노트

SPRING Life

발행일 | 2011. 05. 01

발행인 | 신 건 목사

신촌성결교회 청년부

발행 | 문서선교팀 (담당사역자 | 박수범 목사)

표지 디자인 - 최윤정

내지 디자인 - 이흥범

콘텐츠 수집&정리 - 박세라 서유진 신부현

이상미 이정은 조신재

기획 / 편집 - 송영일

문의 | 박수범 목사 (010. 2990. 3371)

지역 및 해외 어린이 도움주기 프로젝트

만배의 기적

“물품을 기부받거나, 기부 받은 물건을 교환해나가는 기부 릴레이”

- 참여방법 : 물건, 재정, 시간, 재능을 드리는 물물교환식 기부 릴레이
- 신청기간 : 2011년 4월 17일(주일) ~ 4월 24일(주일)
- 진행기간 : 2011년 4월 24일(주일) ~ 5월 29일(주일)
- 바 자 회 : 2011년 6월 19일(주일)
- 문 의 : 이준호 목사(010-9970-5321)

※ 만배의기적 기부금은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지역 및 해외에 전달하고 기부결과를 사진과 글로 보고해 드립니다



2011 SPRING LIFE - MAY LOVE AND GRACE